

광주·전남 이태원 참사 희생자 발인 엄수



“오매 불쌍한 내 아가 어딜 간다냐.” “아빠보다 먼저 떠나다니...”

이태원 참사로 유명을 달리한 광주·전남 희생자들의 발인식이 이틀에 걸쳐 엄수됐다. 곳곳에 차려진 빈소에선 이루 말할 수 없는 비통함에 잠긴 유족·친구들이 통곡과 오열로 고인을 떠나보냈다.

2일 오후 광주 북구 용전동 한 장례식장에서는 이태원 참사로 숨진 A(28·여)씨의 발인식이 치러졌다.

유족·친구들은 발인식 직후 A씨의 관 위에 국화 한 송이를 놓으며 저마다 작별 인사를 건넸다. 복받치는 감정을 억누르던 친구들은 친구의 관 앞에서 기어이 눈물을 터뜨렸다.

하루 아침에 만평을 보내야 하는 어머니는 관을 부둥켜 안고 주저앉아 슬픔을 울었다. 간신히 장례지도사와 가족의 부축을 받고 나서야 자리에서 일

어났다.

고모는 “아가, 아가 어디가냐. 오매 오매 불쌍한 내 새끼 어디가냐”를 연신 외치며 비통함을 감추지 못했다.

A씨는 간호 보조 일을 하며 직접 모은 학비로 대학에 뒤늦게 입학해 학업을 마쳤다. 2년 전에는 서울 유명 대학 병원에 취업, 비로소 간호사의 꿈을 이뤘다. 어머니에게는 타향살이에도 안부 전하는 꼬박꼬박 잊지 않았던 의젓한 딸이었다.

앞선 오전 8시 30분 동구 모 장례식장에서도 친구들을 만나러 갔다가 참변을 당한 B(29)씨의 발인이 진행됐다.

함께 이태원을 찾았던 고교 동창들이 관을 나눠 짊어지며 친구의 마지막 길을 지켰다. B씨 부모는 운구차에 실린 관을 어루만지며 “사랑하는 내 O O야”하고 아들 이름을 목 놓아 불렀

이태원 참사 희생자 이틀째 발인 엄수 “오매 불쌍한 내 아가 어딜 간다냐”

다. 유족과 친구들은 차오르는 눈물을 쏟아냈다.

광주에서 대학 학업까지 마친 B씨는 지난 2020년 도목기사 자격증을 취득, 취업 준비 2년 만인 지난 8월 꿈에 그리던 서울 소재 한 기업에 입사했다.

B씨는 취업 기념으로 친구 6명과 이태원을 찾았다가 안타까운 참변을 당했다.

이날 서구 모 장례식장에서도 희생자 C(26)씨가 가족 곁을 떠나 영면에 들었다.

상주를 맡은 만형은 운구차를 향해 마지막 묵념을 하는 자리에서 끝내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아버지는 떠나려는 관을 차마 쳐다보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다.

C씨는 생전 가족에게 웃음을 주고 유난히 정이 많던 막내였다. 올해 초 제조업체에 인턴으로 입사해 여웃돈이 생겼으며 만형과 둘째 누나의 해외 여행 경비를 보태기도 했다.

광산구 모 장례식장에서는 금융 공기업 소속 변호사 D(43)씨도 장지로 향했다.

D씨는 생전 ‘세상을 뜬 쌍둥이 형뫼까지 효도하겠다’며 로스쿨 졸업 이후 취업해 알뜰하게 모은 돈으로 부모님 집 장만까지 한 효자였다. 어머니는 “속 썩인 적 한 번 없는 막둥이를 잃고 어찌 사느냐”며 망연자실했다.

전날 오후에는 조·중·고 동창 단짝 친구 2명의 발인이 1시간 여 간격을 두고 치러지기도 했다.

E(24·여), F(24·여)씨는 각자의 정규직 전환·승진을 축하하고자 이태원을 찾았다가 숨졌다. E씨는 다니던 은행의 정규직 전환 필기 시험에 합격한 이튿날 꽃다운 삶을 마감했다. 영정

결에는 정규직 사령장이 안타까움을 더했다.

서울 모 백화점에서 다니던 F씨도 승진 소식을 전한 지 3주 만에 허망하게 가족 곁을 떠났다.

같은 날 오전 지역 유일 10대 희생자인 G(19·여)씨도 전남 장성 모 장례식장에서 발인했다.

아버지는 원머리 염색까지 직접 챙겼던 막내 딸을 쉽사리 보내지 못했다. 그는 영정을 연신 쓰다듬으며 “아이고 먼저 가서 이 아빠를 울리냐”며 통탄했다.

6개월 전 서울 한 미용실에 취업한 G씨는 사고 당일 직장 동료 7명과 함께 이태원을 찾았다가 세상을 등졌다.

목포 출신 희생자 H(26·여)씨의 발인도 고향에서 유족들의 눈물 바다 속에 엄수됐다. 한하게 웃는 영정을 앞세운 관을 운구차에 옮기자 유족 행렬 사이로 울음 소리가 새어 나왔다.

취업과 함께 인천에서 살던 H씨는 주검이 돼야 가족의 품으로 3년 만에 돌아왔다.

이로써 광주·전남에 빈소가 마련된 이태원 참사 희생자 8명의 장례 절차는 마무리됐다.

나머지 희생자 2명은 광주와 목포에 주소 등록을 뒀지만 유족 의사에 따라 각각 대전과 부산에서 장례가 치러진다.

한편 지난달 29일 오후 10시 15분 서울 이태원역 1번 출구 주변 좁은 골목에서 사람들이 엉키면서 156명이 숨지고 157명이 다쳤다. 대규모 압사 사고가 발생한 이태원에는 야외 마스크 해제 뒤 맞이하는 첫 헬리콥터를 앞두고 10만 명이 몰린 것으로 알려졌다.

임형택기자



해양경찰교육원-육군특수전학교, 업무협약 체결

해양경찰교육원(원장 여인태)은 최근 육군특수전학교(준장 권영우)와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수호하는 공동의 목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김재환기자



광양소방, '11월은 불조심 강조의 달' 운영

광양소방서(서장 서승호)는 화재 위험이 증가하는 가을-겨울철을 맞아 11월을 불조심 강조의 달로 운영하여 범시민적인 화재 예방 분위기를 조성한다고 밝혔다.

광양=김현근기자



완도소방 119생활안전순찰대, '노화 서넛도 비상구감함' 설치

완도소방서(서장 김옥연) 119생활안전순찰대는 완도군 노화 서넛도 경로복지회관을 방문하여 일반 상비약 및 의상처리 물품이 포함된 “비상구감함”을 설치하였다.

완도=기동취재본부



광주 남부소방, 119청소년단과 함께하는 소소심 소방안전교육

광주 남부소방서(서장 이정자)는 11월 불조심 강조의 달을 맞아 화재 예방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소·소·심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최이슬기자



무안소방, 남악 빌딩 화재 스프링클러 작동으로 초기 진화

무안소방서(서장 박의승)는 2일 오전 03:05 남악 소재에 있는 빌딩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나 스프링클러가 정상 작동해 초기에 진압됐다고 밝혔다.

무안=이기성기자



한국수력원자력(주) 한빛원자력본부, 예체능 꿈나무 육성 사업

한국수력원자력(주) 한빛원자력본부(본부장 천원호)는 최근 한빛본부 홍보관에서 '2022년도 예체능 꿈나무 육성 후원결연증서 전달식'을 개최했다.

서선욱기자

“학교급식 종사자 20% ‘폐 이상소견 발견’...61명은 암 의심”

광주·대구·울산·경북·충남·전남교육청 검진결과

학교 급식실 노동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교육 당국의 폐암 건강진단 중간 결과, 검사자 20%가 폐결절을 앓고 있거나 폐암이 의심된다는 결과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광주·대구·울산·경북·충남·전남 6개 시도교육청의 학교 급식실 노동자 폐암 검진 중간 결과를 보면, 검사자 8301명 중 1653명(19.9%)이 이상 소견을 보

였다. 폐암이 의심되거나 매우 의심되는 검사자도 61명(0.73%)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 충남 17명, 전남 14명, 광주 10명, 경북 8명, 대구 7명, 울산 5명 등 순이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2월 학교 급식노동자의 폐암을 산업재해로 처음 승인한 뒤, 같은 해 12월 건강검진 실시기준을 마련했다.

실시기준은 학교 급식실에 근무

하는 노동자로, 55세 이상 또는 급식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자에 대해 국가 암검진에서 폐암 선별검사로 사용되는 ‘저선량 폐 CT 촬영’을 실시하는 것이 골자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별로 각각 검진을 실시하도록 하고 최근 광주·대구·울산·경북·충남·전남 6개 교육청에서 중간 결과를 제출 받았다. 최종 결과는 내년 2월말까지 취합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서 의원에 따르면 근로복지공

단에 지난 9월14일까지 접수된 학교 급식노동자 폐암 산재신청 건수는 총 79건으로, 이 중 50건이 산재로 승인됐다. 산재 인정을 받고 산재 학교 급식 노동자도 5명 포함돼 있다.

앞서 9월29일 전국학교비정규직 노동조합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에 ▲급식노동자 정기 폐암 건강검진 실시, 환기시설 개선을 위한 규정 마련 ▲급식실 적정 인원 배치 기준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최이슬기자



양념을 골고루

2일 오전 대구 수성구청 주차장에서 열린 '2022 사랑의 김장 담가주기' 행사에서 대구 수성구 새마을회 회원 등 봉사자들이 배추를 양념에 버무리고 있다. 이날 만들어진 김장 김치는 수성구 관내 23개 동 취약계층 800 세대에게 나뉘어 예정이다.

경찰관 차에 매단 채 달린 음주운전자 입건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을 차에 매단 채 도주한 30대 운전자가 검거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음주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매단 채 차량을 몰아 다치게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도로교통법 위반)로 3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11시 35분께 광주 서구 도심 일대에서 음주 운전을 하고, 파출소 경찰관 B경위·C순경을 차량에 매단 채 달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B경위와 C순경 모두 전치 2주 진단을 받고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정차·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채 차량을 20m 가량 뺐 것으로 드러났다.

기동취재본부